

진주 이야기



전주시립완산도서관



EM291209



전주이야기

인 쇄 | 2011년 1월 20일

발 행 | 2011년 1월 31일

발 행 처 | 전주시·전주문화원

감 수 | 전주문화원

인 쇄 처 | 지디기획(063-271-3367)

이 책은 2010 향토자원조사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주 이야기

C O N T E N T S

- 08 발간사 - 전주시장
09 - 전주문화원장



PART 1 전주시 축제와 문화이야기

- 12 1. 약령시의 선두주자 - 전주약령시한방EXPO
14 2. 국내 유일의 종이박물관 - 전주한지박물관
16 3. 호남제일성 - 풍남문
18 4. 국경을 초월한 인연 - 풍패지관
20 5. 전주전통술박물관 - 수을관
22 6. 조선의 역사를 지키다 - 전주사고
24 7.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주수목원'



PART 2 전주 거리와 출길

- 28 1. 걷고 싶은 거리
30 2. 곤지산 초록바위와 이팝나무
32 3. 마음의 휴양지, 덕진공원
34 4. 도당산(都堂山) 주변 이야기
- 안덕원(安德院) 전투
-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묘소
- 통천김씨(通川金氏) 노루명당
38 5. 두무소(杜舞沼) 설화
40 6. 정겨움이 있는 우리의 전통술, 막걸리
42 7. 보광재 나무꾼 이야기
44 8. 삼천(三川, 세내) 이야기
46 9. 아중저수지 푸른 물은.....
- 허수아비가 이긴 전투



PART 3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을 거닐다

- 52 1. 김치는 보양식이다
- 전주한옥마을 김명옥김치
- 54 2. 나무공작소 木목遇우軒軒
- 56 3. 문화사랑방 '양사재'
- 58 4. 역사의 아픔을 뒤로 하고 귀향한 '전주동헌'
- 60 5. 완판본의 고장 전주에서 용의 비상을 꿈꾸다
- 전주목판서화체험관
- 62 6.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뜨락 '동락원'
- 64 7. 참살이(well-being) '상덕커리'
- 66 8. 학창시절 추억의 맛 '베테랑'
- 68 9. 호남이 낳은 독립운동가 - 일송 장현식선생
- 70 10. 新 예술의 가교 - 교동Art



PART 4 별난사람 별난이야기

- 74 1. 한국의 체육 박물관,
전북체육발전연구원장 - 이인철
- 76 2. 문인화에 한글화제를 처음 시도한 - 김승방
- 78 3.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연주자,
청하 민속학 연구소장 - 전태준
- 80 4. 전북도립미술관 건립비화의
주인공 - 박남재 화백
- 82 5. 영원한 춤꾼, 국내 최초로 예기무를
접시춤으로 공연한 전수자 - 김광숙
- 84 6. 종이우산과 더불어 살아온,
전국 유일의 종이우산 장인 - 윤규상 장인
- 86 7. 신문스크랩 인생 50년의 - 송옥희
- 88 8. 3대째 이어온 우리봇 만들기 50년
모필의 명장 - 곽종찬 명인
- 90 9. 초등학교 때부터 붓을 잡고
80년을 지내다 - 권병열
- 92 10. 짚신 삼는 달인,
짚신 삼기 80년 - 김형철 옹
- 94 11. 전통 수묵화 명인 - 목정 방의걸 화백
- 96 12. 붓과 더불어 50년,
평생 붓 하나로 살아온 - 아석 소병순
- 98 13. 3만여점의 자료를 소장한
고하문학관 관장 - 시인 최승범
- 100 14. 전북문학연구원 허소라 시인의 서재
- 시인 허소라
- 102 15. 나홀로 사물놀이 공연하는 - 유춘수



PART 5 나라를 혼돈
삶의 흔적
(삼문밖 남부시장(삼박전)이야기)

- 106 1. 한국 최초 장시 남부시장
- 110 2. 차이나거리
- 112 3. 약전거리



PART 6 전주 둘레길,
둘레산

- 117 1. 1월 - 왕(王)의 길
- 118 2. 2월 - 아쉬움 길
- 119 3. 3월 - 미완(未完)의 길
- 120 4. 4월 - 천년(千年)의 길
- 121 5. 5월 - 선비 길
- 122 6. 6월 - 등짐 길
- 123 7. 7월 - 연꽃 길
- 124 8. 8월 - 선너머 길
- 125 9. 9월 - 순교의 길
- 126 10. 10월 - 전주의 물길
- 127 11. 11월 - 극복(克復)의 길
- 128 12. 12월 - 섣다리 길

130 향토자원조사를 마치며...

1 약령시의 선두주자

전주약령시한방EXPO

약령시(藥令市)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방관장의 영에 따라 일정한 장소와 날짜를 정하여 형성한 한약재시장을 말한다.

약령시(藥令市)는 전주와 대구를 시작으로 진주, 개성, 대전, 함흥, 평양, 원주, 제천, 공주, 충주, 청주, 의주 등에 개설되었으나 그 가운데 전주와 대구약령시가 가장 활발하게 선두를 다투었다.



전주약령시 한방EXPO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는 조선조 17대 효종 2년인 1651년 최초로 개설된 이후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250년이 지난 1901년에 재흥되었으나, 이 역시 2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1923년 당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세 번째 개시를 보게 되었으나, 이 역시 1943년 일제 강점말기의 전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50여년 애환의 그늘 속에 파묻혀 있었다.

1999년 9월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 정현국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곧바로 현대화된 한의약 마케팅을 바탕으로 제1회 전주약령시 제전행사를 갖게 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는 당시 유지였던 박기순의 후원과 약령시(藥令市)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던 박계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반을 닦았다. 박계조의 공적을 기리는 비(『全州 藥令市總務前議官朴季祚記念碑』)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연수당한의원 옆 노변에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전주약령시한방엑스포는 헤민서무료한방진료, 우리가 족보약달이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세미나, 각종 무대행사, 그리고 각종 약초 판매 및 전시, 한방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는 축제이다.



약령시 박계조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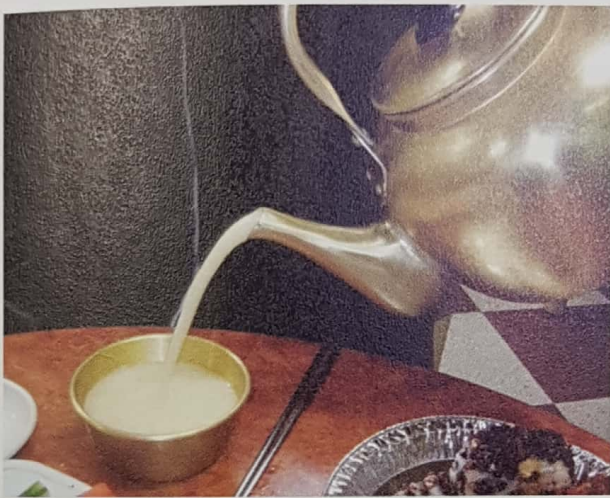
한방축제

6 정겨움이 있는 우리의 전통술 막걸리

꽃피는 봄 산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을때, 무더운 여름 더위와 일에 지쳐 목이 마를때, 을씨년스러운 가을날씨에, 겨울 추위에 고단할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고된 일상을 달래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술 막걸리다. 막걸리는 예부터 전해온 우리나라의 전통술로, 힘든 삶을 살았던 서민들이 많이 찾아먹었던 정겨운 우리의 먹거리다.





그런 막걸리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소주, 맥주에 치어 점점 잊혀져 가던 중, 우리나라의 토종음식 개발과 함께 다시 각광받고 있다. 세계화에 걸맞게 일본, 미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만에 소주를 제치고 주류판매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막걸리의 부흥 중심에 바로 전주가 있다.

옛날부터 맛과 멋의 고장으로 전통음식을 많이 보존 개발하고 있었는데, 막걸리도 그 중에 하나이다. 전주에는 전통음식의 특색을 살려 발달된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한곳이 바로 막걸리 골목이다. 특히 삼천동과 서신동 동부시장의 막걸리 골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전주 막걸리골목의 특징은 막걸리 한 주전자에 따라 나오는 안주가 매우 푸짐하다는 것이다. 푸짐함만으로 승부한다면 멋과 맛의 고장 전주가 아니다. 푸짐함에 더하여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함도 맛 볼 수 있다. 또한 주인장의 정성없이는 나올 수 없는 안주가 다양하여 먹는 재미를 더해준다. 그야말로 육해공의 음식들을 다 맛 볼 수 있는것이 큰 매력이라 하겠다.

8 학창시절 추억의 맛_

'베테랑'



베테랑 전경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거의 무일푼이었던 주인장은 '베테랑'이란 상호를 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많은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학생들에게 싼 값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칼국수를 대표로 만두, 소바, 쫄면 등의 메뉴를 판매하였다.



66 전주이야기





베테랑분식의 모든 메뉴는 다 맛이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할만한 음식은 칼국수와 만두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스테인리스 그릇에 넘칠 정도로 가득 담긴 칼국수 면과 깨, 달걀, 김 가루가 들어간 칼국수는 면발이 쫄깃하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게 이 집만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먹어보았던 칼국수와는 다르게 걸썩한 국물과 고소한 깨 가루의 조화는 심한 중독이 될 정도로 독특한 맛이다. 칼국

수의 면은 그날 먹을 양만큼만 직접 뽑아낸다고 한다.

또 속이 흰히 비치는 얇은 피의 만두는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고소한 육즙이 입안에 확 퍼진다. 다른 고기만두는 고기소가 너무 많아 먹고 나면 더부룩함을 주지만, 베테랑만두는 쫄깃한 당면이 더 많이 들어 있어 소박하고 담백한 서민의 맛을 남겨준다.

종업원에게도 절대 전수 하지 않는 주인장만의 독특한 비법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법은 아들에게만 전해져 명성을 쫓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시인 최승범

최승범 교수하면 도내는 물론 전국문단에서도 알아주는 시조 시인이요 국문학자다.
뿐만 아니라 평생 수집한 그의 자료만 해도 3만여 점이 넘는다 하니 서지학자라 할만도 하다.

이 자료를 대략 분류하면 간찰, 문학자료, 미술자료, 역사자료, 향토자료 등 80 평생 살아오는 동안
그와 관련된 자료는 한조각도 버리지 않았다 한다.



최승범의 시집들

특히 정년이후의 간찰은 「고비」라는 제하의 홀더에 넣어 1권에 40점씩 150권이 정리되었고, 서상에 가득한 문단생활과 이전의 간찰 수천 점은 아직 수량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목록 작업만 하려해도 어림잡아 전문인력 5~6명이 1년 이상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교수는 문단생활 50년이 넘고 있어 그가 소장한 간찰은 전북문학사, 미술사, 국악사 등 지역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특히 그의 서재에는 1953년 삼례중에 근무할 때 그가 만든 「향토문화독본」은 꼼꼼하게 등사한 책이라 종이 외 지질과 당시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1 한국 최초 장시 남부시장



남부시장은 전라도 서민들의 삶의 역사일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을 그리고 전주부성의 붕괴를 지켜보았고 전국 장사꾼이 모여 웃음과 눈물을 팔던 서민들의 이야기가 깊이 스며있는 터전이다.

남부시장은 원래 전주성 남문과 서문밖에 2일과 7일에 열린 5일장이었다 한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후 전북의 상업과 금융, 교통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남부시장은 540년이라는 역사속에 국내에서 최초로 생긴 시장의 발상지이자, 한 때 전국의 쌀값을 좌지우지했던 어마어마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대형상가와 SSM이 밀려오면서 과거의 위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부 시장의 발생

조선왕조는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 각 지방에서의 시장 형성을 극히 꺼렸다. 이에 대한 상황은 1473년 신숙주가 쓴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확해진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서울 외의 지방에는 상설점포가 없었는데 성종 원년 기근에 전라도 백성이 스스로 모여 시포(市鋪)를 열어 장문(場門)이라 불렀다.

나주목사는 이를 금해서는 안 된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호조(戶曹)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해서 완강히 금지시켰다고 쓰여있다.

이처럼 시장의 발생은 굶주림에 대한 백성의 자발적 생존 대책이었음에도 지배층은 농촌에 대한 지배력 약화라는 본능적 공포감으로 이를 여지없이 금지시켰다.

하지만 1526년 중종때 장시를 전국적으로 금지, 억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농민의 생존을 위한 자연발생된 장시를 묵인내지 허용하게 되었다.

1473년 전주부 남문에서 처음으로 장시가 등장한 이래 52년간의 억압을 끝으로 1526년경에 결국 허용된 셈이다.

이 때부터 향시(鄕市)가 증가하게 되고, 지역상업에 기여하면서 더 많은 장시가 생겨나게 됐다. 순조 9년에 쓰인 만기요람(1809년)엔 이 시기에 들어선 장시만 1,061개소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듯 수많은 장시 가운데 전라도에서 큰 시장으로는 전주와 남원읍내장이다.

특히 전주부성의 시장상황은 부내대장, 남문외장, 서문외소장, 북문외장, 동문외장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4문의 외장이 있어 네 개의 시장이 있었고 부내대장이라 해서 성내에 한 개의 장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성내의 가로는 좁고 평일도 상설점포의 상거래가 왕성해짐에 따라 성내시장은 관의 비협조로 시들어졌고 결국 4문에 있는 장시로 고착되어 버렸다.

즉 중종·명종 이후에 장시가 전주의 4문밖에 섰으나 어느때부터인가 성내에도 장이 서 1840년경에는 대장이 형성되었지만 이후 부내장은 소멸되어 버리고 4문밖 장만 남게 된 것이다.

전주부성의 장시는 4문밖 시장마다 개시일이 달랐고 취급하는 상품도 기능화되어 있다.

동문외장은 9일장에 한약재와 특용작물을 판매했으며, 서문외장은 7일장으로 소금과 깨 같은 양념류와 어물을 팔았으며, 남문외장은 2일장으로 생활품과 곡식을, 북문외장은 포목과 잡곡을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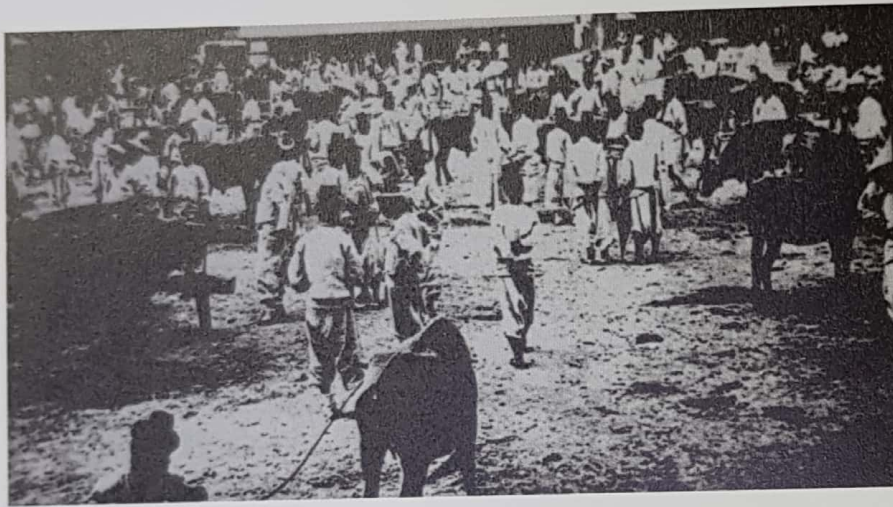
이처럼 번성했던 시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완산칠봉에서 쏘아댄 관군의 대포에 맞아 500여호의 건물이 불에 타 결국 장터가 파괴되는 비극을 보게 됐다.

장터의 파괴는 곧바로 전주 사람들 삶의 피폐함을 불러왔고, 일제 강점기에는 서문부근의 성벽을 철거하면서 동·북 두 시장이 자연 소멸되고, 서문시장까지 침체되어 결국 1923년 남문시장으로 통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540년 역사를 이어온 전국 최초 장시 남부시장

남문장은 보통 남박장(발음은 남뱃장)이라 하여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전라도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었다.

조선말까지 남박장은 지금의 남문시장 부근에서 전주교 일대에 이르는 천변 자갈밭에서 열렸다. 전주천 둑은 1937년에야 완성되었고 전에는 홍수의 피해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남문에 가까운 곳에 영구건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천변에 가까울수록 가가(假家, 후에 가게로 변함)들이 태반이었다.



남박장이 번성함에 따라 어느 때부터인가 부근 일대에 정기적, 부정기적 장이 섰다.

남박장에서 전주교는 주로 쌀을 말이나 되로 파는 되쟁이 가곡물을 판매해 싸전다리라고도 했다.

매곡교쪽은 연죽다리라 해서 주로 담배·담뱃대를 팔았다.

지금의 완산교는 염전다리(소금전다리)라 해서 소금장수가 진을 치고 있었다.

남문에서 다가동으로 가는 길목의 은방골목과 그 넘어 종이장수가 많은 지전거리도 남문밖 장과 연계되어 발전해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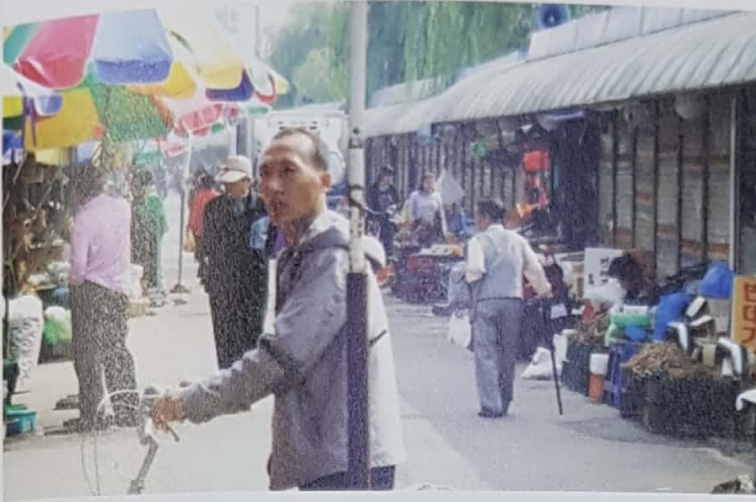
그 후 전주교와 매곡교 사이 하천부지에 우시장이 열려서 쇠전강변이라 하였고 1914년에는 현 서학동 교대부속초등학교 남쪽으로 옮겨서 1950년대까지 존속됐다.

서문부근이 번성함에 따라 1923년에는 다가동에 약령시가 설정되기도 했다. 이 모두가 남박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주의 상업발전사다.

이것이 전라도의 전주는 장시의 발상지이고 남문시장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승된 한국의 유일무이한 역사적 시장이다. 맨 처음 장시가 열렸다는 1473년으로부터 2010년 현재 540여년이 되었다.

뒤늦긴 하였으나 한국 최초의 장시개설 기념탑이라도 높이 세우고 연례적 축제를 열어 시장발양의 금지를 가져야 할 듯 하다.

남부시장의 변천사



1905년에 정기 공설시장으로 개설된 남부시장은 일본상인들이 진출하면서 1923년 서문시장과 통합돼 전주 남문시장으로 불리워졌다.

그 당시 시장규모는 오늘날과 비슷한 5,800여평(현재 5,600여평)이었고 연간 시장 출입인원이 186만명으로 호남권 최대의 물류 집산지의 위용을 과시했다.

남부시장은 해방 이후에도 전북의 상업, 금융, 교통의 중심적 기능을 계속해 왔으며, 그 전성기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이어졌다.

당시를 회고하면 남부시장은 호남 최대의 물류집산 시장으로 물건을 실은 대형 화물차의 왕래가 많았으며 현재의 전주시청자리는 그때 당시에는 전주역이었는데 화물이 들어오면 마차나 리어카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전국의 쌀 시세가 남부시장에서 결정되었을 정도였으며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남부시장을 통해 쌀을 사가던 때였다.

이후 전주시는 1973년 현 시장건물 7개동을 신축해 상인들에게 분양했으며 1978년에 남부시장변영회의 시장개설 허가를 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도심 외곽에 대형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단지마다 대형상가가 자리잡아 서서히 시장의 상권이 잠식당했으며 이때부터 전통시장의 쇠퇴가 시작됐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 등의 SSM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권이 크게 타격을 받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0년들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남부시장에서도 오랜 전통과 거대한 역사를 살리자는 뜻을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남부시장은 문화를 입히는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자 남부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이벤트를 열어 찾아오는 고객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현재 남부시장은 현재 790여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약전거리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는 현 다가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완산교 입구에 이르는 구간에 개설되었으며, 개장시기는 매년 음력동짓달 초하루부터 설달 그믐까지 55일 또는 60일간 개장하였는데 시장세는 면세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기 약령시(藥令市)개장 이외의 날에도 교역의 특수시장으로 연중 약산약해(藥山藥海)를 이루었다.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에서 거래되었던 도내생산 및 채집 한약재는 지리산, 덕유산, 회문산, 내장산, 변산반도 등 한약재 생산에 가장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에서 생산되어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약재가 당재라는 이름으로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미얀마, 월남 등에서 수입되어 그 규모가 대단했으며 약령시(藥令市) 참가자 모임인 전주약령영성회의 활동으로 한동안은 거래액이 대구약령시

를 20%이상 초과했으며, 1930년대 초반부터 1938년까지는 계속 대구를 앞질렀고, 만주에 넓은 땅을 매입하여 우수한 약재 재배도 계획하였다.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의 판매액이 전주시 1년 예산을 훨씬 능가하였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는 당시 유지였던 박기순의 후원과 약령시(藥令市)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던 박계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반을 닦았는데,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연수당한의원옆 노변에 전주 약령시총무전의원박계조기념비『全州 藥令市總務前議官朴季祚記念碑』가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설립에 공이 많은 박계조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령(令)골목이라고 불리우는 전주약령시의 길 전후에는 소나무가지를 꺾어 만든 아치형 송문이 세워졌고, 오색글씨로 산지, 종류, 상호를 표시한 영기(令旗)가 나부꼈으며, 곰과 사향노루를 잡아다가 즉석에서 웅담과 사향을 채취하는 등 엄동설한에도 볼거리가 많았다 한다.

